

장

이른아침 안락네들은 시들은 生活을
바구니 하나 가득 담아내고……
엮고 지고……안고 들고……
모여드오 작구 장에 모여드오.

가난한 生活을 골골히 버려놓고
밀려가고…… 밀려오고……
제마다 生活을 웨치오……싸우오.

원하로 올망졸망한 生活을
되질하고 저울질하고 자질하다가
날이 저무려 안락네들이
쏟은生活과 박구어 또 니고돌아가오.

一九三七、 봄

장

이른 아침 아낙네들은 시들은 생활을
바구니 하나 가득 담아 이고……
엮고 지고……안고 들고……
모여드오 자꾸 장에 모여드오.

가난한 생활을 골골이 벌여놓고
밀려가고…… 밀려오고……
저마다 생활을 외치오……싸우오.

원 하루 올망졸망한 생활을
되질하고 저울질하고 자질하다가
날이 저물어 아낙네들이
쏟은 생활과 바꾸어 또 이고 돌아가오.

1937. 봄